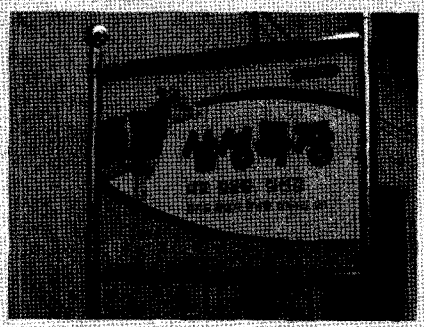
3대가 일궈온 목장, 도시화 바람에 휘청

취재 및 정리 : 이 혜 진 (축산경제신문 기자)



향삼성 목장 현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근교농업으로 발달한 낙농업이 점차 지역의 도시화 됨에 따라 경기도 축산 농가들의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나 수도권 지역의 낙농가들은 도시화로 인해 후보목장부지 물색에 실패하거나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목장 등이 농장폐업에 나서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600여 농가가 자신의 쿼터를 매각하고 목장을 정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농업을 3대째 이어오며 가업승계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목장이 있다.

3대가 일궈온 목장

향삼성목장.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상두리에 위치한 낙농목장이다. 올해로 40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향삼성목장은 경기도 내 낙농인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이가 드물 정도다. 향삼성목장은 3대가 함께 했기에 그 의미가 더 큰 목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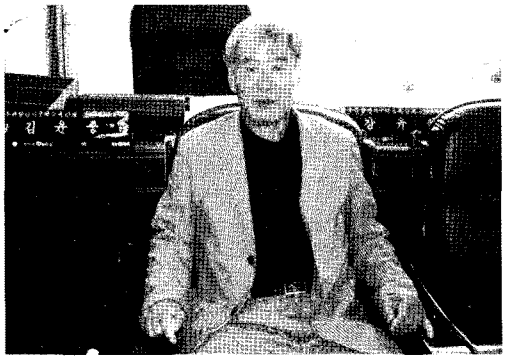
특히나 설립자 고 김용각씨는 지난 70년대 초,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젖소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자 양계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매일유업에서 도입한 젖소 10두를 배정 받아 우유 생산과 목장기반 다지기를 본격화하며 낙농업을 시작했다. 이것이 향삼성목장의 전신 삼성목장의 시작이다.

낙농 경영이나 젖소 사양관리에 필요한 노하우와 기술은 물론 사료,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고 열악했던 만큼 젖소 두당 산유량이 15~20kg 수준에 그치는 등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는 게 2대 김윤중 대표의 기억이다.

김윤중 대표는 부친인 고 김용각 대표로부터 향삼성목장을 대물림 받은 장본인이다.

김 씨는 부친을 화성시 관내지역인 발안지역에 낙농업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한 개척자이자 공로자로 회고한다.

고 김용각 대표가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와 좌절 등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교훈, 그리고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하며 낙농업에 새로 진입하는 낙농가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우유 발안 축산계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윤중 대표

김윤중 대표는 "지난 77년 아버지가 별세하셨는데 당시,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낙농을 가업으로 승계 받아 경영을 지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목장경영 안정화

향삼성목장의 제2대 목장주이자 대표로 활동을 본격화 한 김 씨는 80년대에 들어 경영 안정화 및 체계적인 목장관리에 심혈을 쏟기 시작, 마침내 자신이 목표로 했던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향삼성목장의 전체 젖소 사육두수는 송아지를 포함 100여 두다. 서울우유에 납유량이 1,400kg 내외로 우수 낙농농가로 꼽힌 지 오래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결과가 한순간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김윤중 대표가 펼쳐 보인 향삼성목장의 40년 역사에서는 위기와 절망 순간도 눈에 띄어 주목케 했다. 1996년 화재로 목장 일부와 집이 불에 타고 무엇보다 목장경영에 기초 데이터가 되는 기록과 자료 사진들이 모두 소실됐던 게 첫 위기였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한숨 돌리려는 즈음인 1998년에는 우결핵이 발병, 가족처럼 보살피고 관리했던 젖소를 도리 없이 살 처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 때 살 처분했던 전체 두수가 90두였다고 한다.

향삼성목장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꺼번에 많은 소가 입식된 탓인지 질병 피해가 끊이지 않아 경영난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아 다른 축산 업종으로의 전업도 깊이 고려 했었단다. 김 씨는 특단의 조치로 납유 전면 중단과 우군정상화를 선택, 과감히 추진 4~5년여에 걸친 노력과 투자로 목장 경영 전반을 정상화하는 보람을 느꼈었다고 회고한다.

김윤중, 이경애 대표 부부

낙농업에 대한 김 씨의 애착과 관심은 남달랐다. 이런 관심과 애착을 알아 본 터였는지 그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고 기꺼이 봉사에 임했다고. 향남면 축산계장과 수원축협 대의원, 이사, 운영평가 자문위원, 서울우유 발안지구 축산계장을 역임한 김 씨는 향삼성목장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부인 이영란 씨의 공도 지대하다고 말했다.

틈틈이 인근 낙농가들과 접촉하며 낙농현안 및 정보교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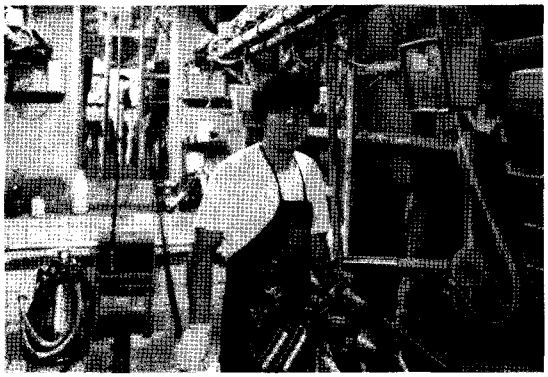
특히 지난 2000년 연초, 허리를 다쳐 착유 및 목장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영란 씨가 묵묵히 감당하며 폐업까지 고려했을 정도로 고민과 갈등에 빠져있던 김 씨를 일깨웠다고 한다. 이 같은 이유가 향삼성목장이 지금의 터를 떠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김윤중 대표는 힘이 드는 일손 대신 목장 경영 자문역으로 충실하고 있다. 향삼성목장의 제3대 대표가 믿음직할 정도로 경영을 잘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중 대표의 아들인 김선강(33)씨가 향삼성목장의 3번째 주인이 된 것이다. 한창 젊은 김선강 씨는 낙농업을 경영하는 부모의 허락 하에 사회생활을 경험했다.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 사회생활이 3년 째에 접어들었을 무렵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접하고 바로 목장 경영에 뛰어 들었다.

목장에 부는 도시화 바람

목장의 안정화에 따라 순조로울 것만 같던 김 대표 부자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 최근 들어 목장 인근지역이 도시화 바람 속에 개발이 진척되면서 목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파트, 공장 등이 마구 생기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특히 개발로 인해 땅값이 상승하고 목장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사라지는 것을 피부로 접하며 안타까움이 더해져 3대 째 이어온 목장경영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전했다.


착유부터 목장관리까지 목장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김선강 씨.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젖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우유생산량 역시 전국 최고인 낙농산업의 메카로 향남읍 관내지역은 낙농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손 꼽혔던 곳이다.

낙농가 수가 한 때 22호에 달했으나 도시화로 인해 현재는 5농가밖에 남지 않았다.

김 대표 부자는 "최근 개발 추세를 고려해 볼 때 현재 위치에서 목장경영이 가능한 시한이 약 10년 남짓도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목장 이전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전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솔직히 걱정된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최근 인근지역까지 도시개발계획이 들어서 목장이전 부지를 수소문하기도 했지만 경기 남부일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며, "당진 등 충남 쪽에 부지를 매입하긴 했으나 목장을 이전하는 일,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이 앞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목장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포부를 당당히 밝힌 김선강 씨는 신세대답게 '소사모'(낙농 2세 경영인들이 구성한 소를 사랑하는 모임)의 지역모임에도 적극 참여, 새로운 정보와 신기술 교류 및 공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며 목장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또 현재 1,200kg 수준인 착유량을 2,000kg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프리스톨 우사를 톱밥우사로 교체하는 등 시설 보완과 현대화, 첨단화 계획도 가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구상을 펼쳐 보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도시화로 인해 목장을 이전해야 한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김선강 씨의 설명이다. 김선강 씨는 "낙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는 가운데 목장이 단순한 축산 현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식량창고 등으로 더욱 중시되는 등 낙농인들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있게 된다면 낙농목장을 더욱 아름답게 일구어 아들에게 물려줘 다른 농가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만한 낙농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